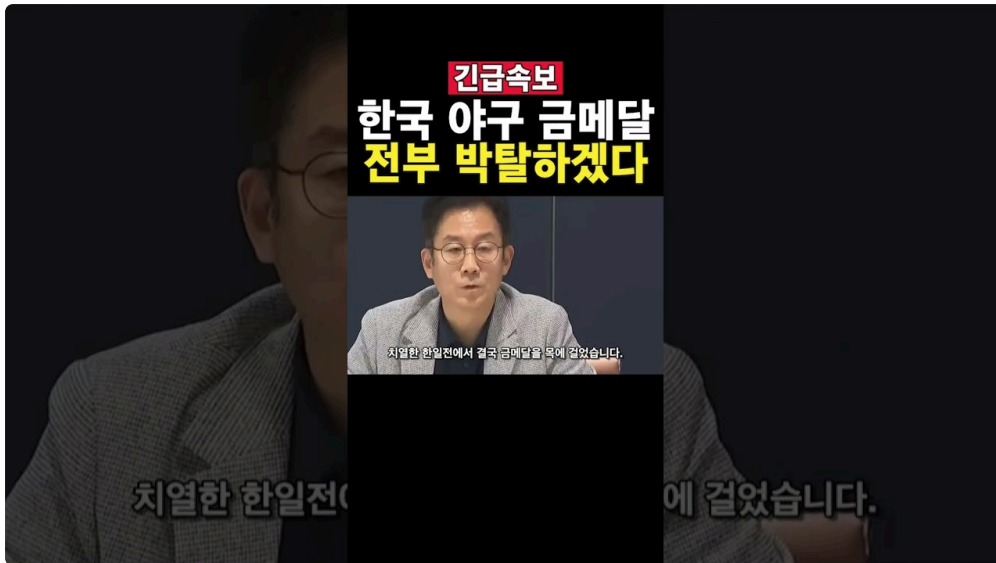


MLB 2026 시즌이 3월 25일에 시작된다는 소식 들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일정 확인부터 하게 되더라. 특히 한국에선 시차 때문에 “내가 지금 봐도 되는 시간인가”가 바로 체감이 되니까, 더더욱 스케줄을 빨리 잡아두는 게 중요해진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구중계, mlb중계 얘기 나올 때도 결국 결론은 같아져. 공식 schedule이 업데이트됐는지, 시작 시간이 정확히 언제로 잡혔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번 글은 “MLB 2026 첫 경기, 3/25 경기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mlb중계 보려는 입장에서 schedule 확인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풀어볼게. 중간중간 체크해야 할 함정도 같이 짚고, 실제로 내가 일정 확인할 때 쓰는 감각으로 써볼게.



3/25가 왜 중요하냐면, 시즌 스타트라서

MLB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공식 일정 흐름이 잡혀 있어. 그리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개막일 본편)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지.

여기서 핵심은 “3/25 첫 경기”가 딱 시즌의 첫 불이 붙는 날이라서, 중계 찾는 사람도 제일 먼저 물리고 변동도 상대적으로 체감이 크다는 점이야. 실제 경기 시작 전에는 일정이 바뀌거나(순연이나 취소 같은 케이스), 중계 플랫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를 고를 때도, 단순히 “있다/없다”가 아니라 공식 schedule에서 현재 경기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한국에서 보는 관점, 시차 때문에 일정이 달라 보임

한국은 KST(UTC+9)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서머타임 UTC-4를 써. 이 말은 한국이 보통 ET 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MLB중계 시청 시간은 한국 프로야구(대개 저녁 위주)와 결이 꽤 달라져. 새벽이나 오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같은 “오후”라도 한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찍히는 느낌이 나지. 결과적으로 3/25 첫 경기를 찾을 때도 “ET 기준으로 몇 시인지”를 먼저 잡아야 한국에서 몇 시에 봐야 하는지 계산이 깔끔해져.

여기서 하나 더. Opening Day 관련해서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4:00 p.m. ET로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경기처럼, 시간대가 다양하게 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3/25 첫 경기뿐 아니라 3/26 이후도 “한 번에 딱 하나의 시간 패턴”으로 외우기보다는, 당일 schedule에서 실제 시작 시간을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해.

schedule 확인할 때,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포인트

야구중계, mlb중계를 찾다 보면 일정 화면을 보다가 “아 대충 이 시간쯤이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MLB는 특히 첫 주에 그게 자주 걸리더라. 이유는 간단해. 한국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 시간이 하루나 몇 시간씩만 달라져도 체감이 확 바뀌거든.

내가 일정 확인할 때는 아래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 “일정 화면”을 볼 때 단순히 경기 유무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작 시간과 변동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는 쪽으로 습관을 잡는 게 좋았어.

1) 공식 schedule에서 당일 경기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2) 시작 시각이 ET 기준으로 어떻게 찍혀 있는지 3) 중계 화면에서 표시되는 시간이 한국 시간인지 ET인지 헷갈리지 않는지 4) 순연이나 취소 같은 변동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5) 내가 찾는 야구중계사이트가 공식 schedule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지연 노출이 있는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처음엔 체크리스트처럼 한 번씩만 확인해도 감이 잡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이트는 시작 시간이 늦게 바뀌더라” 같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선택이 빨라져.

내가 추천하는 일정 확인 루틴(짧고 현실적인 방식)

여기서는 리스트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볼게. 너무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로 일정 확인할 때 바로 써먹기 좋게.

1. MLB 공식 schedule 페이지에서 3월 25일 경기(자이언츠 - 양키스)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2. 표시된 시작 시간이 ET 기준인지 확인하기
3.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몇 시쯤인지 바로 머릿속 계산(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름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4. 3월 25일 당일로 넘어가면서 schedule이 업데이트됐는지 한 번 더 보기
5. 중계 찾을 땐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보이는 시작 시간이 공식 schedule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 루틴이 좋은 이유는, 중계 화면에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역추적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사이트가 늦게 바뀐 건가, 공식 schedule 자체가 바뀐 건가”가 순식간에 갈려.

3/25 첫 경기, 어떤 식으로 찾아야 제일 덜 헤매냐면

3월 25일 첫 경기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 뉴욕 양키스”로 잡혀 있어.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차와 표시 단위 때문에 헤맬 수 있다는 거지.

MLB는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을 schedul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두고 있어. 그러니까 3/25를 찾을 때는 “날짜를 고른 다음”에 해당 경기 카드로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해. 특정 팀 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첫 경기 확인 목적이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더라.

또 하나. Opening Day 흐름(3/26)으로 넘어가면 경기 시작 시간이 4:00 p.m. ET, 8:05 p.m. ET처럼 다양하게 공지된 경기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 이때도 팀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날짜가 얹혀 보일 때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일 schedule에서 날짜별로 꼭 확인하는 방식이 스트레스가 덜해.



“야구중계사이트”를 쓸 거면, 기준을 정해놓는 게 편함

야구중계사이트를 찾을 때 가장 큰 만족 차이는 결국 “최신 schedule 반영” 여부더라. 공식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중계 사이트 표시가 그대로면, 한국에서는 그 차이를 더 크게 느껴. 새벽이나 오전에 걸리는 경기면 특히 “시간만 틀어져도 그냥 시청 타이밍 놓치기”가 되니까.

그래서 사이트 고를 때는 감으로 찍기보다, 아래 같은 기준을 하나 정해두는 게 좋아. 이것도 리스트로 짧게만 줄게.

1. 공식 schedule과 경기 시작 시간이 일치하는지
2. 순연이나 변동이 반영됐는지(당일 업데이트 여부)
3. 표시된 시간이 한국 시간인지, ET 기준인지 구분이 되는지
4. 경기 시작 직전까지 표시가 계속 바뀌는지(동기화가 느린 곳은 피하기)

이 기준만 [야구중계](#) 잡아두면, “어디 들어가면 안전하냐” 고민이 훨씬 줄어.

3/25부터 3/26로 넘어갈 때, 기대치 조절이 필요함

3/25 첫 경기로 시즌의 시작을 맞보고, 3/26이 본격 Opening Day로 간다고 했지. 이 구간은 시청자 입장에서 기대가 커지기 쉬워. 그런데 기대가 커질수록 “한 번에 모든 걸 다 맞춰봐야지” 욕심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

내가 느끼는 현실적인 포인트는 이거야. 3/25는 첫 경기라서 일정 확인만 제대로 해도 성공이고, 3/26은 Opening Day라서 경기들이 더 촘촘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리고 시작 시간이 4:00 p.m. ET처럼 공지된 경기, 8:05 p.m. ET처럼 다른 시간대로 공지된 경기들이 섞인다고 되어 있으니, “아 오늘도 같은 시간대겠지”라고 생각하면 틀어지기 쉬워.

그래서 3/25 [야구중계사이트](#) 본 다음 날, 3/26도 결국 다시 schedule을 확인하는 쪽이 마음이 편해. 같은 시즌인데도 “첫 날과 개막일 본편”은 시차 체감이 다르게 오기 때문이야.

시간 계산을 대충 하면 생기는 작은 사고들

시간 계산은 단순히 보여도, 실제로는 헷갈릴 여지가 있어. ET가 UTC-5인지 UTC-4인지에 따라 한국이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고 되어 있으니, 언제부터 정확히 바뀌는지까지 사용자가 다 알아야만 완벽해져. 근데 그걸 매번 사용자가 계산하려고 들면 피곤해지잖아.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해. "ET 기준 시작 시간"을 schedule에서 확인한 다음, 한국 시간 변환을 대략 감으로 잡되, 중계 화면에서 표시되는 시간이 공식 schedule이랑 맞는지 한 번만 교차 확인한다. 그렇게 하면 ET가 13시간인지 14시간인지가 살짝 달라져도, 마지막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야구중계, mlb중계 시청에서 진짜 실전 팁이야. 계산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내 화면에 뜨는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성공률이 높더라.

정리해보자, 3/25 첫 경기 schedule 확인의 핵심은 딱 두 가지

결국 MLB 2026 첫 경기(3/25) 관련해서 schedule을 확인할 때 중요한 건 두 덩어리로 끝나. 하나는 "공식 schedule에서 3/25 첫 경기(자이언츠 - 양키스)가 어떻게 표시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작 시간을 한국에서 볼 때 몇 시가 되는지, 그리고 중계 화면이 그 정보를 따라오는지"야.

이거만 제대로 잡아두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시간도 줄고,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놓치게 되는 상황도 확 줄어들어. 특히 MLB는 시즌 초반에 정보가 빨리 돌고,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오류나 지연 노출이 섞일 여지도 생겨. 그래서 기본은 공식 일정 기반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더라.

마지막으로, 3/25 일정 확인을 바로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해보면 돼. 첫 단계는 간단해. MLB 공식 schedule에서 3월 25일에 해당하는 첫 경기(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 뉴욕 양키스)와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내 생활 패턴에 맞는지 판단하면 끝이야. 그리고 당일에는 한 번 더 확인. 이 루틴이 제일 덜 피곤해.

원하면, 네가 "3/25에 실제로 한국에서 몇 시에 시작하는지"를 계산해서 계획표처럼 정리해주는 것도 가능해. 다만 ET가 13시간인지 14시간인지가 섞일 수 있어서, 네가 확인하려는 시작 시간 표기가 ET로 정확히 뭐라고 뜨는지만 알려줘. 그러면 그 정보 기준으로 한국에서 몇 시에 봐야 하는지 딱 맞춰줄게.